

질적 연구의 심화와 확장: 한국 정치학 연구에서의 근거이론 방법 적용 가능성*

박나라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차 례

- I. 서론
- II. 한국 정치학과 질적 연구 방법론(methodology)
- III. 한국 정치학과 근거이론 방법(methods)
- IV. 결론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한국 정치학 연구 방법론 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대표적인 사회과학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근거이론 방법에 대해 고찰한다. 최근 한국 정치학 연구에서 계량적, 통계적 방법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계량적 방법을 사용한 논문이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질적 연구 방법(methods)에 의거하여 자료를 분석한 논문은 많지 않으며, 질적 연구 방법론(methodology)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적-귀납적 패러다임 하에서 “자료에 근거한 이론 창출”을 목표로 하는 근거이론 방법(grounded theory method)은 기존 이론에 대한 검증을 금과옥조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3A2075609).

로 삼는 양적-연역적 패러다임의 다른 한 쪽에서 방법론적 균형을 가져올 것이다. 궁극적으로 근거이론은, 특히 한국정치, 비교정치, 국제정치 등의 분야에서, 거대이론과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중범위이론이 한국적 맥락에서 생성되도록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주제어: 한국 정치학 연구, 방법론, 질적 연구, 근거이론 방법

I. 서론

사회‘과학’으로서의 정치학은 정치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과학적 엄밀성과 이론적 체계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불문율이다. 따라서 과학적, 체계적으로 인간(들)의 정치적 행위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연과학의 정향과 도구를 광범위하게 빌려오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여타 사회과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치학 연구도 기본적으로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으로 양분되어 있지만, 최근 들어 양적 접근이 방법론적 우위를 점하고 계량적 방법을 사용한 논문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등의 현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양적 연구의 ‘과학적 추론(scientific inference)’ 방식과 절차가 질적 연구에 무리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King et al. 1994), 이른바 ‘양적인 질적 연구’가 ‘질적인 질적 연구’에 비해 진보된 연구 패러다임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서로 다른 ‘종교’(Schrodt 2006), ‘문화’(Mahoney and Goertz 2006), ‘언어’(Jennings 2012)를 가진 것에 비유될 만큼 간극을 좁히지 못하던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의 결합이 드디어 성사됐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환영받지 못하는 까닭은, 그 결합이 ‘양’이 ‘질’을 흡수 통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정치학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특히 최근 한국 정치학에서의 방법론적 고민은 대부분 연역적으로 도출된 가설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위한 것이었고, 양적 방법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은 그러한 고민 해결을 위한 노력의 발로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현장이 아닌 책상에서 생각해

넌 이론은 실제 세상의 이치와 불일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헌(literature)이 아닌 자료(data)로부터 새로운 가설을 발굴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유효하다(Glaser and Strauss 1967, 19-20).

본 논문은 한국 정치학 연구에서 질적 연구의 경향과 추이를 살펴보고, 근거이론 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II장에서는 양적 연구 패러다임과 결을 달리 하는 질적 연구 방법론(methodology)의 지향점과 스펙트럼을 고찰하고, 최근 한국 정치학에서의 경향성과 변화를 검토한다. 제III장에서는 그간 한국 정치학 연구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근거이론 방법의 핵심을 소개하고, 한국 정치학 연구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제시한다. 결론에서는 양적 연구의 과학성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자리 잡은 현재의 한국 정치학계에서 근거이론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는 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II. 한국 정치학과 질적 연구 방법론(methodology)

1. 사회과학 질적 연구의 스펙트럼

1) 사회과학 연구의 패러다임

과학의 발전은 패러다임 간의 관계와 변화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과학사학자 쿤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과학적 패러다임(scientific paradigm)’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모범적인 방법을 배우게 된다(Kuhn 1962/1996, 10). 패러다임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거의) 모든 과학자들 사이에 보편적인 세계관으로서 공유되기도 하지만, 공통적인 가치, 규범, 신념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개별 학파의 고유한 학문적 정체성으로 정립되기도 한다. 본래 쿤의 패러다임 개념은 패러다임의 순차적 전환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에 가깝지만, 최근의 학문적 패러다임 개념은 복잡다기한 현실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적 관점의 공존에 좀 더 관용적이라는 점에서 후자에 훨씬 더 가까울 것으로 사료된다.

어느 쪽이든, 학자들이 패러다임을 평가하고 선택할 때의 기준은 크게 네 가지이

다(Guba and Lincoln 2005). 즉, 현실 세계의 본질을 탐구하는 시각에 관한 존재론(ontology), 인간이 실재를 이해하는 방식에 관한 인식론(epistemology), 연구자의 윤리적·미학적 관점에 관한 담론들을 포함하는 가치론(axiology), 지식이 창출되는 방법(methods)과 접근(approach)을 총체적으로 고찰하는 방법론(methodology)이 패러다임의 특성을 나타내는 네 가지 요소로 제시된다. 이 네 가지 요소의 조합에 따라 지식이 획득되고 해석되는 과정과 결과가 달라지므로, 연구자들은 자신의 학문적 목표에 따라 신중하게 패러다임을 선택하게 된다.

<표 1>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비교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연구 패러다임	지적 전통	실증주의, 경험주의	해석주의, 구성주의
	존재론	객관성	(간)주관성
	인식론	외부자의 관점	내부자의 관점
	가치론	가치중립적	가치 함축적
	방법론	연역적 사고 (이론의 검증)	귀납적 사고 (이론의 창출)
연구 방법	연구 목적	일반화(generalizability)	설명(explanatory power)
	연구 조건	인위적 조건	자연적 조건
	표본 추출	통계적 표본의 대표성 (임의 표본 추출)	이론적 포화도 (이론적 표본 추출)
	분석 과정	객관적, 체계적 틀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연구를 진행함	참여자, 공동연구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 연구의 절차와 규칙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음
	분석 요소	변수	개념
	분석 기준	통계적 유의성	이론적 민감성

<표 1>은 양과 질, 두 패러다임의 주요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 철학적 기초, 이론적 정향을 결정하는 패러다임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실제 연구의 목적, 절차, 조건 등도 상이하다. 두 연구 패러다임의 가장 큰 차이는 양적 연구가 연역적 사고와 분석 방식을 특징으로 하는 데 반해, 질적 연구는 귀납적 접근을 취한다는 사실이다(Strauss 1987).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염두에 두지 않을 경우,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어지게 된다. 양적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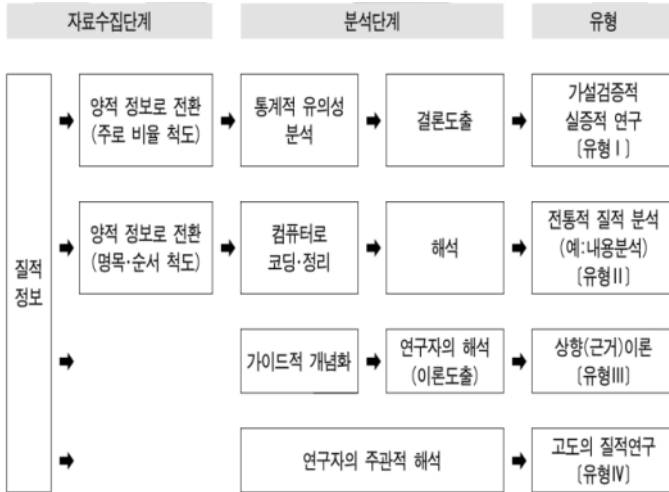
구자들과 질적 연구자들은 연구 목표, 핵심 가치, 신념 체계, 사고 과정, 분석 절차, 해석 방식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양자 간의 융합이 결코 쉽지 않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모두 ‘과학’의 틀 안에서 수행되는 데도 불구하고, 종교, 문화, 언어의 차이에 비견될 만큼 서로 다른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현대 학계에서 가장 치열한 ‘패러다임 전쟁(paradigm wars)’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사이에서 발발했다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Denzin and Lincoln 2011).

2) 질적 연구의 범위

질적 연구는 비수치적, 비계량적 자료에 대한 수집, 분석, 해석을 하기 위한 비수학적, 비통계적인 과학적 방법을 총칭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Van Maanen 1979; Babbie 2013), 어떠한 방법을 질적 연구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학자들 사이에서 완벽한 합의가 형성되지 못했다(Denzin and Lincoln 2000). 문화기술지, 근거이론, 사례연구, 서사분석 등 몇몇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 학자의 학문적 배경이나 연구의 주안점에 따라 각각 다른 유형의 방법들을 질적 연구 방법의 범주로 포함시킨다고 볼 수 있다.¹⁾

1) 질적 연구자들이 정의하는 질적 연구의 범주에 대해서는 김영천(2016, 14)의 <질적연구의 역사적 전통>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Babbie(2001)는 자연주의, 현상학-민속방법론, 근거이론, 사례연구, 제도민속지학, 참여행동연구, Creswell(1998)은 문화기술지, 근거이론, 현상학, 사례연구, 전기적연구, Hatch(2002)는 문화기술지, 미시문화기술지, 민속방법론, 참여관찰, 면담관찰 연구, 핵심집단 연구, 유물 분석, 역사연구, 근거이론, 자연주의 탐구, 상징적 상호작용, 서사분석, 교육비평, 현상학, 사례연구, 실행연구, 협동연구, Jacob(1988)은 인간 기호학·상징학, 생태학적 심리학, 총체적 문화기술지, 인지인류학, 의사소통의 문화기술지·미시문화기술지, 상징적 상호작용, Lancy(1993)는 인류학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 전기적 관점, 사례연구, 개인적 서술, 인지연구, 역사연구, Merriam(2009)은 기초적 질적 연구,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서사분석, 비판적 질적 연구, Wolcott(1992)은 기록연구, 비참여관찰, 참여관찰, 면담으로 질적 연구가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1> 질적 정보 분석 방법에 따른 연구의 유형



자료: 임도빈(2009) <표 1>

질적 연구를 연구 설계의 차이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유형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임도빈 2009, 161-163)은 자료수집단계와 분석단계로만 한정하더라도, 질적 정보를 다루는 연구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형 I]은 질적 자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론에 근거한 가설을 검증하는 연역적 추론에 해당하므로, 양적 연구로 분류된다.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는 귀납적 접근을 취하는 광의의 질적 연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질적 자료를 양적 정보로 변환한 수치에 대한 해석이 주가 되는 [유형 II]는 엄밀한 의미에서 질적 연구의 다른 유형들과 분리하여 ‘양적인 질적 연구’로 지칭할 필요가 있다. [유형 II]의 대표적인 분석 방법으로는 텍스트분석, 언어네트워크분석 등이 포함된다. [유형 III], [유형 IV]는 앞의 두 유형보다 ‘질적’ 패러다임의 영향이 강한 편이다. [유형 III]이 어느 정도는 정형화된 연구 수행 매뉴얼을 갖고 있는 데 비해, [유형 IV]는 연구의 모든 단계를 연구자의 주관과 재량에 맡긴다는 차이가 있다. 이렇듯 임도빈(2009)은 질적 자료를 사용하는 연구를 네 유형으로 분류한 뒤, 양적 연구([유형 I]), 양적인 질적 연구([유형 II]), 질적인 질적 연구([유형 IV]) 등 세 유형으로 다시 나누고 있다.

<표 2> 질적 연구의 유형

	자료수집	자료가공	자료분석	자료해석	일반적 접근방식	대표적 방법
I	질	양	양	양	연역	통계분석
II	질	양	양	질	연역·귀납	내용분석
III	질	질	질	질	귀납	근거이론
IV	질	N/A	질	질	귀납	해석학적 연구

<표 2>는 <그림 1>을 더욱 단순하게 정리한 것이다. 연구의 단계를 세분화하여 자료의 수집, 가공, 분석, 해석 등 네 단계로 표현하고, 각 유형별로 양적 패러다임과 질적 패러다임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지를 표기했다. 단, 임도빈(2009)이 [유형 II]를 귀납적 접근에 가깝다고 본 반면, <표 2>는 귀납과 연역 모두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두었다. [유형 I]로 갈수록 양적 패러다임의 영향을, [유형 IV]로 갈수록 질적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형 IV]가 [유형 III]보다 전체적, 총체적, 통합적 시각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3> 질적 연구의 스펙트럼

1) 분석의 주체	비관찰 → 비참여관찰 → 참여관찰 → 행위자 자신
2) 분석의 대상	추상화된(일반적인) 대상 → 개별화된(구체적인) 대상
3) 분석의 목적	가설검증·법칙정립·정당화 → 기술(description)·이해·비판
4) 분석의 방법	연역적·개별적 → 귀납적·총체적
5) 분석의 자료	2차적 자료 → 1차적 자료(녹취록, 관찰기록, 원래의 텍스트)
6) 분석의 언어	연구자 언어, 인공 언어 → 참여자 목소리, 자연(비가공)언어

자료: 윤건수(2005) <표 2>, 일부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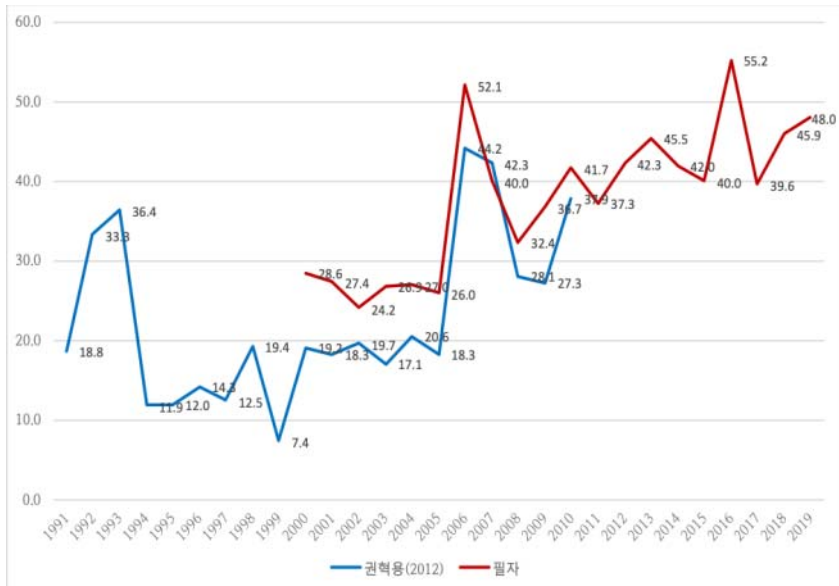
<표 3>은 윤건수(2005, 6-8)가 조명한 질적 연구의 스펙트럼의 6차원을 인용하여 <표 1>, <표 2>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났던 양적, 질적 패러다임의 영향 수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각 차원마다 왼쪽으로 갈수록 양적 패러다임의 영향이 강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질적 패러다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분석 주체의 연구 개입 강도가 클수록, 분석 대상의 대표성·일반성보다 고유성·특정성이 부각될수록, 맥락에 대한 풍부한 서술이 이루어질수록, 귀납적·총체적 접근이 이루어질수록, 현장에서 직접 획득한 자료를 사용할수록, 추상적인 전문용어보다 일상적 언어가 사용될수록 질적 연구 패러다임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2. 한국 정치학의 질적 연구 경향 및 추이

한국 정치학의 연구 경향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비계량적 접근을 취하는 논문의 비중이 꾸준히 압도적으로 나타나지만, 최근 들어 계량적, 통계적 방법을 사용한 사례의 증가세가 뚜렷하다(임성학 2010; 권혁용 2012). <그림 2>는 이러한 추이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1991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정치학회보>에 게재된 논문 중 정치철학·사상 분야를 제외한 논문 전수를 대상으로 자료 분석에 사용한 방법을 조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물론 <한국정치학회보>에 게재된 논문의 특성을 일반화하여 한국 정치학 연구의 경향으로 단정짓는 것은 여러 한계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한국 정치학 연구’ 경향을 검토하는 다수의 메타분석 논문에서는 <한국정치학회보>를 한국 정치학계의 대표적인 학술지(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e.g., 이상환 1998; 2001; 김지희 2002a; 조성대 2008; 임성학 2010; 권혁용 2012; 2015; 이대진 2015). 수치의 신뢰성을 기하기 위해, 2010년~2019년은 필자가 조사한 결과(적색선)와 1991~2010년을 조사한 권혁용(2012)의 분석 결과(청색선)를 함께 제시하였다.²⁾ <그림 2>의 두 조사 결과로부터, 지난 30여 년간 한국 정치학 연구에서 계량적 방법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198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으며(김지희 2002a), 정치학 연구에서의 통계적 방법 사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도 비슷한 시기이다(김웅진 1987; 이갑윤 1987). 즉, <그림 2>의 증가 추이는 상당히 오랜 연원을 갖고 있으며, 이는 향후 계량적 방법 사용 논문의 비중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2) 비교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권혁용(2012)의 코딩 방식을 원용하고, 의도적으로 2000~2010년을 필자가 다시 계수하였다. 두 조사의 시기가 중복되는 해당 시기의 추이를 보면, 다소 수치적 차이가 발생하지만 증감의 방향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계량적 방법 사용 논문의 비중



최근, 즉 2000년대 이후 동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2000~2019년 <한국정치학회보>에 게재된 논문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을 복수 코딩한 결과를 <표 4>에 정리하였다. <표 4>에 따르면, 계량적 접근에 해당하는 방법이 비계량적 접근에 비해 훨씬 많이 쓰이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그림 2>의 계량적 연구 비중에서 유추할 수 있다시피, 최근 들어서도 비계량적 연구가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는데 <표 4>에서는 계량적 방법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난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표 5>에서 제시하듯이 비계량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대부분의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을 적시하지 않고 있어 집계가 어렵기 때문이다.³⁾ 둘째, 계량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상당수의 논문들이 복수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데 반

3) 방법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 중 상당수는 자료 분석에 역사학적 방법(historical method)을 사용하고 있지만 저자가 방법(론)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개별 사례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정치이론 및 사상의 경우 철학적 방법(philosophical method) 등에 의거하여 논리적 전개가 이루어졌지만, 경험적 자료를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즉, 정성적 연구로 분류되는 논문 중 많은 수가 방법(론)을 적시하지 않은 것은 논문의 흠결이라기보다는, 논문의 성격과도 많은 연관을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해 비계량적 연구들은 그러한 경향이 적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계량적 연구 가운데는 최대 5개의 방법이 사용한 논문도 발견되었다. 요컨대, 단순히 계량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연구 방식을 뜻하는 비계량적 접근과, 질적 연구 방법론에 의거하여 수행된 연구들을 가리키는 질적 접근을 구분하자면, 한국의 정치학 연구에서 ‘비계량적 접근’을 취한 연구는 많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질적 접근’을 취한 연구는 많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자료 분석 방법

접근	방법	논문 수
계량적	기술통계분석	170
	회귀분석 ⁴⁾	129
	로짓분석	92
	평균비교분석	25
	분산분석	23
	요인분석	22
	프로빗분석	18
	교차분석	18
	상관관계분석	16
	카이검정	9
	포멀모델	14
	시뮬레이션분석	8
	네트워크분석	7
	경로분석	6
	사건사분석	5
	구조방정식모형	4
	실험연구	3
	준실험연구	3
	토픽모델링	2
	베이지안추정	2
	빈도분석	2
	불리안(Boolean)비교분석 ⁵⁾	2
	Markov분석	2
자동화된텍스트분석	2	
이중차분법	1	

	위계적APC모형(Hierarchical APC Model: HAPC)	1
	공분산분석	1
	로그선형모델	1
	GIS	1
	대응분석	1
	스키마분석	1
	산술계산	1
	비모수적인커널분포추정(Kernel Density Estimation)	1
	W-NOMINATE	1
	소계	594
비계량적	사례연구	94
	내용분석	7
	담론분석	6
	Q분석	2
	메타이론	1
	초상화분석	1
	일상의시각과고프만의'상호작용하는일상생활의상황과구조'분석방법론	1
	VICS(Verbs In Context System)	1
	정성적분류분석	1
	소계	114
혼합적	퍼지셋분석	1

<표 5> 비계량적 연구의 방법 적시 여부

발행연도	분석 방법 적시	분석 방법 비적시	합계
2000	7 (12.5)	49 (87.5)	56 (100.0)
2001	4 (8.2)	45 (91.8)	49 (100.0)
2002	12 (16.4)	61 (83.6)	73 (100.0)

- 4) 로짓 및 프로빗분석도 회귀분석의 일종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로짓 및 프로빗분석을 사용한 사례의 수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성을 보여주기 위해 <표 4>에서는 이들을 별도로 계수하였다.
- 5) 불리안비교분석은 이론과 자료 간의 상호 비교를 논리적,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자료의 해석에 이진법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질적 연구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Romme 1995). <표 4>에서는 자료의 특성보다 방법의 성격을 분류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불리안비교분석이 정성적 자료 분석에 널리 쓰인다 하더라도, 이진법, 불대수(Boolean algebra) 등의 계량적 논리가 도입된 분석 방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2003	10 (14.5)	59 (85.5)	69 (100.0)
2004	8 (11.1)	64 (88.9)	72 (100.0)
2005	10 (14.7)	58 (85.3)	68 (100.0)
2006	4 (12.5)	28 (87.5)	32 (100.0)
2007	4 (12.5)	28 (87.5)	32 (100.0)
2008	10 (18.5)	44 (81.5)	54 (100.0)
2009	4 (9.5)	38 (90.5)	42 (100.0)
2010	3 (10.7)	25 (89.3)	28 (100.0)
2011	4 (8.9)	41 (91.1)	45 (100.0)
2012	8 (19.0)	34 (81.0)	42 (100.0)
2013	6 (16.7)	30 (83.3)	36 (100.0)
2014	4 (10.0)	36 (90.0)	40 (100.0)
2015	5 (15.2)	28 (84.8)	33 (100.0)
2016	0 (0.0)	25 (100.0)	25 (100.0)
2017	4 (10.8)	33 (89.2)	37 (100.0)
2018	4 (14.3)	24 (85.7)	28 (100.0)
2019	4 (26.7)	11 (73.3)	15 (100.0)
합계	115 ⁶⁾ (13.1)	761 (86.9)	876 (100.0)

† ()안은 각 연도별 해당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표 6>에서도 위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양적-연역적 패러다임의 우세를 재확인할 수 있다. <표 6>은 2000~2019년 사이 방법(론) 그 자체에 대해 고찰하거나, 한국 정치학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한국정치학회보> 논문을 모두 정리한 것이다. 우선, 방법(론)에 대한 심도 깊은 성찰을 피한 개별 논문이 그리 많지 않고, 그나마도 2010년 초반 이후에는 자취를 감추었다. 게다가 질적 연구 방법

6) 여기에는 <표 4>의 비계량적 접근 연구 114건과 혼합적 접근 연구 1건이 포함되어 있다.

(론)을 따로 집중적으로 다룬 논문은 찾을 수 없었다. 혼합적 패러다임에는 양적-연역적 패러다임과 질적-귀납적 패러다임의 조화 가능성과 융합 방안에 대해 다룬 논문들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양적-연역적 패러다임에 비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6> 방법(론) 고찰 논문

패러다임	저자 (발행연도)	논문명	연구 내용
양적-연역적	김지희 (2002b)	비교정치연구에 있어서 혼합체계 분석안의 방법론적 적실성	혼합체계분석안
	김옥 (2002)	선거와 정치주식시장	정치주식시장
	조기숙· 박혜윤 (2004)	신뢰의 측정	기술통계 요인분석 교차분석
	함성득 외 (2004)	한국 대통령 평가방법의 과학적 설계과정	다속성 효용이론 스윙기법 추적연구
	김형민 (2009)	네트워크 분석방법의 국제정치학적 적용	네트워크분석
	Kim (2009)	Psychological Learning, Reinforcement Learning, and the Emergence of Cooperation in the Prisoner's Dilemma	시뮬레이션
	홍재우 외 (2012)	대통령제와 연립정부	교차분석 분산분석 이항·다항 로지스틱
혼합적	안재홍 (2005)	수(數)와 이야기	실증주의 해석학 서사분석
	민병원 (2010)	통섭의 국제정치학	개념화(통섭)
	김병욱 (2011)	정치학 방법론에 관한 메타이론적 검토	메타이론

III. 한국 정치학과 근거이론 방법(methods)

1. 사회과학에서의 근거이론 방법

1) 근거이론의 변증법적 발전

근거이론은 1967년 글레이저(Glaser)와 스트라우스(Strauss)에 의해 “발견”된 이후,⁷⁾ 수많은 학자들의 논쟁과 합의를 거쳐 사회과학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질적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Denzin 1994). “근거이론의 발견”은 실증주의, 행태주의의 영향으로 유행한 ‘양적-연역적 패러다임’의 다른 한 쪽에서 ‘질적-귀납적 패러다임’이 사회과학 연구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상당한 기여를 했다(Benoliel 1996; Thomas and James 2006). 이러한 근거이론의 기여는 혁명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며(Walker and Myrick 2006), 그 인기는 압도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West 2001).

근거이론이 오늘날 질적 연구 방법론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방법 중 하나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이 있었다. 우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두 개의 전혀 다른 지적 전통의 결합에서부터 근거이론이 시작되었다는 데 있다(Charmaz 2006). 근거이론의 발견자 중 한 사람인 글레이저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실증주의에 기초한 양적 연구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았다. 근거이론의 경험을 중시하는 인식론적 가정과 체계적인 방법론적 절차가 양적 연구 패러다임에서 기인하는 바가 큰 것은 글레이저의 이러한 학문적 배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근거이론을 발견한 다른 한 사람인 스트라우스는 실증주의를 비판하고 해석주의를 주창하는 시카고학과 출신이었다. 시카고학파는 미드(Mead 1932)와 블루머(Blumer 1969)로 대표되는 실용주의와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를 철학적 기초로 삼아, 인간이 구조적 영향력 하에 일방적으로 예속되기보다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가는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즉, 근거이론의 존재론·가치론적 측면은 인식론·방법론적 측면과 상이한 지적 전통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중교배는 근거이론이 질적 연구 방법론 발전에 혁신적 기여를 하는 데 큰 도움을 준 동시에, 근거이론이 발전과정상 논쟁과 분열을 겪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⁸⁾

7) <근거이론의 발견: 질적 연구를 위한 전략(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은 1965년 두 저자가 공동으로 저술한 <죽음에 대한 인식(Awareness of Dying)>에서 사용된 방법론적 원칙을 정리하고 “근거이론”이라는 이름을 붙여 질적 연구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발표한 것이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과학계에서 “근거이론의 발견”은 1965년에 시작되고 1967년에 “발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8) 하지만 스트라우스의 후기 저작을 함께 한 코빈에 따르면, 그 두 학파는 존재론적, 인식론적, 가치론적으로 다르기 보다는, 방법론적(style, techniques, ways)으로 다를 뿐이라고 한다

근거이론 발전사에서 돌이킬 수 없는 분기점이 된 것은 스트라우스가 그동안의 근거이론 논의와 차별화되는 <사회과학자들을 위한 질적 분석(Qualitative Analysis for Social Scientists)>을 출간한 1987년부터이다. 뒤이어 1990년에는 1987년의 논의를 이어가면서, 글레이저가 아닌 코빈과 함께 <질적 연구의 기초(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를 새로 다지면서 글레이저와 선을 더욱 분명하게 그었다. 이에 글레이저는 1992년에 독자적으로 “근거이론 분석의 기초(Basics of Grounded Theory)”라는 부제를 단 책을 출판하면서, 스트라우스와 코빈을 혹독하게 비판한다.⁹⁾ 스트라우스와 코빈이 근거이론을 왜곡시키고 그간의 근거이론의 진전을 무위로 돌렸다는 것이다. 1992년 책의 제목인 “출현 vs. 강제(Emergence vs. Forcing)”에서 알 수 있듯이, 글레이저는 1967년부터 이어져 온 소위 정통 근거이론과 1987년 이후의 스트라우스적 근거이론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더라도 개념, 범주, 가설, 이론 등이 자연스럽게 ‘출현’할 때까지 기다려서 ‘발견’하는 것이 근거이론의 핵심인데, 스트라우스와 코빈은 잠자코 기다리지 않고 개념, 범주, 가설, 이론 등이 나타나도록 ‘강제’하는 일련의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근거이론의 본질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글레이저는 스트라우스가 1967년 <근거이론의 발견> 당시에도 근거이론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었고, 결국 근거이론 방법이 아닌 “완전한 개념적 서술(full conceptual description)”이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전개했다 (Glaser 1992, 123-124).¹⁰⁾

글레이저의 항변은 근거이론을 심도 깊게 공부하는 다수의 학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었다(Charmaz 2000; Gary and David 2006; Heath and Cowley 2004; Keddy

(Corbin and Strauss 2015, 6-7). 또한 컬럼비아 출신 글레이저가 질적-귀납적 패러다임을 고수하고, 시카고 출신 스트라우스가 양적-연역적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았다고 비판받)은 것은 역설적이다.

9) 글레이저가 스트라우스 없이 단독으로 저술한 것은 그 이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1978년 <이론적 민감성: 근거이론 방법론의 진전(Theoretical Sensitivity: Advances in the Methodology of Grounded Theory)>을 출판했을 때에는 1967년 “발견”의 연장선상에서 그 이후의 방법론적 진전을 소개함으로써 스트라우스와 공동 개발한 기존의 근거이론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했으므로 분기의 조짐이 표출되지 않았다.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라우스와 코빈은 자료로부터 이론이 ‘출현’하게 된다는 근거이론의 대전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스스로 이를 포기한다는 선언은 하지 않았다(e.g., Strauss and Corbin 1998, 12; Corbin and Strauss 2015, 84).

et al. 1996; Kendall 1999; Morse 1994; Rennie 1998; Schreiber 2001; Walker and Myrick 2006). 하지만 그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질적 방법을 사용하는 연구자들은 스트라우스와 코빈 버전의 근거이론을 훨씬 더 선호했다. 스트라우스와 코빈은 근거이론에 대한 명확한 실천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연구자들이 근거이론을 실제 자신의 연구에 접목시키는 것을 용이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이론의 분기(divergence)는 정설(orthodox)을 고수하는 글레이저 학파(Glasian school)와 수정주의자(revisionist)로 간주되는 스트라우스 학파(Strauss school)의 대결로 표현되기도 한다.¹¹⁾

질적 연구 방법론 사상 가장 치열했던 근거이론 논쟁은(Walker and Myrick 2006), 그로 인해 근거이론과 질적 연구의 본질에 대해 되짚어 보고 새로운 진전을 촉발한 다양한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러한 “방법론적 역동성(methodological dynamism)”(Ralph et al. 2015)은 근거이론이 태동할 때부터 배태된, 다른 연구방법론과 차별화되는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그로 말미암은 근거이론의 변증법적 발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¹²⁾ 근거이론의 창시자인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 이후에 2, 3세대 근거이론이 속속 등장한 게 된 것이다. 2세대 근거이론의 대표주자인 샤마즈는 ‘구성주의적 근거이론(constructivist grounded theory)’을 통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Charmaz 2000; 2006). 이론은 연구자에 의해 ‘발견’이나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샤마즈는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의 논쟁에 대한 양비론적 입장을 취한다(Bryant 2002;

11) 사실상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의 공동저작은 1965년 <죽음에 대한 인식>(Glaser and Strauss 1965)과 그 방법론을 정리하여 1967년에 출간한 <근거이론의 발견>(Glaser and Strauss 1967) 두 편에 불과하며, 그 이후에는 근거이론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주고받았으나, 두 사람은 1996년 스트라우스가 작고할 때까지 개인적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Corbin and Strauss 2015, 6).

12) 근거이론은 그 사상적 토대의 양대 축을 형성한 실증주의와 해석주의 이외에도, 다양한 사조와의 연관 하에서 논의되어 왔다. 일례로, 연구대상과 환경의 상호작용 및 제약을 강조하는 시스템이론(systems theory)은 복잡다기한 현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연구대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근거이론과 많은 점을 공유하고 있다(Gregory 2006; Linden 2006). 또한, 대서사들(grand narratives)으로써 연구 대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경계하고, 여러 개의 작은 서사들(small narratives) 간의 경쟁을 강조했던 포스트모더니즘과도 근거이론의 맥이 잇닿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Lyotard 1979/1984).

Mills et al. 2006). 2010년대 이후에는 ‘비판적 현실주의 근거이론(critical realist grounded theory)’으로 명명되는 3세대 근거이론이 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e.g., Kempster and Parry 2011; Oliver 2012; Bunt 2016; Hoddy 2018).

2. 근거이론 방법

(1) 근거이론과 연구 설계

근거이론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자료에 근거한 이론 창출(to construct theory grounded in data)”이라고 할 수 있다(Corbin and Strauss 2015, 3).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함의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근거이론의 ‘목적’은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 그 자체를 창출하는 데 있다. 근거이론은 질적-귀납적 패러다임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근거이론이 이론을 창출하는 ‘방법’은 선행연구가 아닌 수집된 자료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근거이론은 “탁상공론적, 논리연역적 이론화(armchair and logico-deductive theorizing)”(Lewis-Beck et al. 2003, 441)를 배격하고 현장에서 얻어진 자료가 학술문헌보다 현실을 직접,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위에서 서술한 근거이론의 핵심에 관한 두 가지 언명으로부터, 근거이론에 기반한 연구 설계에 대해 유추할 수 있다. 연구 설계 방식에 대한 내용을 인용하기보다 유추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글레이저, 스트라우스, 코빈과 같은 근거이론가들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근거이론의 연구 설계, 절차 등을 공식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글레이저는 연구자가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반복하다보면 일종의 “마법(magic)”과 같이 “출현”하는 이론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면서도, 마법에 사용되는 주문, 즉 구체적인 연구, 분석 방식을 공개하지 않았다(Glaser 1978). 스트라우스와 코빈은, 다음 절에서 소개할 ‘개방코딩-축코딩-선택코딩’이라는 근거이론의 ‘비법’을 공개했(고 그 때문에 글레이저를 필두로 한 근거이론가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여전히 근거이론 연구 수행 방식에 있어 “교조적이고, 엄격한 접근(dogmatic, rigid approach)”(Corbin and Strauss 2015, 1)을 경계한다.¹³⁾

13) 코빈에 의하면, 스트라우스도 생전에 원자료(raw data)에 기반하여 이론(theory)을 창출하는 과정을 지푸라기(straw)로 금(gold)을 만들어내는 것에 자주 빗대어 말했다고 한다

근거이론의 방법론적 유연성은 킹, 코헤인, 버바에 의해 형성된 1990년대 이후 사회과학 질적 연구의 지배적인 경향과 배치된다. 1994년 발표된 <사회조사설계: 질적 연구에서의 과학적 추론(Design Social Inquiry: Scientific Inference in Qualitative Study)>은 세 저자의 이니셜을 딴 KKV라는 약자로 더 많이 불릴 정도로,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널리 읽혔다.¹⁴⁾ KKV는 과학적 연구라면, 양적 방법을 쓰는 질적 방법을 쓰든, ‘공적인(public)’ 절차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바꾸어 말하면, 질적 연구도 ‘명확한, 공식적인, 체계적인, 다른 사람에 의해 재현 가능한, 공개될 수 있는’ 절차를 따른 것이어야만 과학적이라는 것이다.

질적 연구 방법론의 범주에 속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이지만, 근거이론은 KKV의 이러한 방법론적 관점의 대척점에 서 있다. 근거이론의 여러 갈래 중 비교적 명확하게 연구 방법과 절차에 대한 논의를 보여주고 있는 코빈과 스트라우스의 경우에도 자료 분석(analysis) 이전 연구 설계 단계에 대해서는, 근거이론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상적(purposefully abstract)”으로 기술하고 있다(Corbin and Strauss 2015, 1). 그럼에도, 그들은 근거이론 연구에서 연구 주제 설정, 문헌 검토, 가설 설정,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등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i) 연구 주제 설정: 먼저, 연구 주제를 설정할 때에는 선행연구에 의존하기보다 자신보다 식견이 높은 지도교수나 조언자의 의견을 물어보거나,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거나, 자신의 사적, 전문적 경험을 되돌아보거나, 소규모 자료 수집을 통해 자신의 감을 확인해보는 등의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다(Corbin and Strauss 2015, 32-34).

ii) 문헌 검토: 근거이론 연구에서 연구 주제, 가설 설정시 양적-연역적 패러다

(Corbin and Strauss 2015, 65). 독일 전래동화 ‘룸펠슈틸트헨(Rumpelstilzchen)’에 등장하는 난쟁이의 마법을 연상케한다는 점에서 글레이저의 표현과 연관된다. 한편, 코빈은 근거이론의 분석 전략은 전혀 마법 같은 것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Corbin and Strauss 2015, 89).

14) 높은 학술적 기여, 명성, 인기에도 불구하고, KKV도 학계 내에서 여러 비판에 직면해왔다. KKV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과학적 연구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하면서도, 양적 연구 방법의 주요 특징을 과학적 연구로 소개하면서 질적 연구도 그러한 특성을 띤다, 또는 띠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브레이디(Henry E. Brady), 바텔스(Larry M. Bartels), 프리드먼(David A. Freedman)과 같은 저명한 양적 연구자들 역시 KKV가 양적 연구의 강점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Mahoney 2010).

임에서처럼 반드시 문헌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선행연구 검토가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 연구 주제 설정 단계는 물론 전반적인 연구 과정상에서 기존 문헌 검토는 긍정적인 자극(stimulus)이 될 수 있다(Corbin and Strauss 2015, 33). 하지만 근거이론가들은 연구 설계 단계보다는, 실제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도중이나 분석이 완료된 후에 선행연구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실제 자료를 보기 전에는 어떤 개념이 중요하게 나타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문헌 속에서 정립된 개념을 익히는 것은 무의미하다(Corbin and Strauss 2015, 49). 더구나 자료로부터 새로운 개념을 발견하는 것을 방해하고 해석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분석하기 전에는 문헌을 참고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것이다(Corbin and Strauss 2015, 55). 그러나 자료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개념과 학술적으로 정립된 개념을 비교하거나, 자료를 해석할 때 필요한 민감성을 높이거나, 자료 수집 및 분석의 시작점을 마련하거나, 분석 결과를 확증(반증)하는 데 있어서는, 선행연구가 매우 유용할 수 있다(Corbin and Strauss 2015, 49-51). 이와 같이 근거이론 연구에서는, 이론적 분석틀(theoretical framework)이 사용한 방법론을 정당화하거나, 초기 연구 단계의 방향성을 잡거나, 분석 결과에 대한 대안적 설명 방식을 고려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Corbin and Strauss 2015, 52-55). 요약하자면, “문헌에 이용당하지 말고, 문헌을 이용하라(Use the literature, don't let it use you)”(H. S. Becker 1986, 149; Corbin and Strauss 2015, 49 재인용)는 격언이 시사하듯, 근거이론에서 문헌 검토는 자료 분석의 필수 선행 조건이 아니다.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연구에 도움이 되는 단계에서 문헌 검토 결과를 적절히 활용하라는 것이 근거이론가들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조언일 것이다.

iii) 가설 설정: 근거이론에서는 연구 가설을 자료를 분석하기 전에 미리 설정하지 않는다. 앞서 설명한대로, 근거이론의 핵심 목적은 가설 검증이 아닌 가설 생성이기 때문에 가설은 분석의 결과로서 도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이론 연구의 최종 결과물은 실증 자료로부터 뽑아낸 개념들이 유기적, 통합적, 논리적으로 연결된 가설이어야 한다(Glaser 1978). 결과적으로 가설이 도출되기만 한다면, 분석 전에 미리 가설을 설정하더라도 상관이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 가설이 분석 전에 도출될 경우 자료와 유리된, “근거 없는(ungrounded)” 가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근거이론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Glaser and

Strauss 1967). 즉, 근거이론에서는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가설을 형성하는 것이 분석이기 때문에 가설은 분석 결과 다음에 등장해야 한다. 전술한대로, 근거이론 연구에서는 문헌 검토가 필수 과정이라기보다 연구에 도움이 될 경우 실시하는 부가적인 과정이므로, 문헌이 아닌 자료에서 가설이 도출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연구 설계가 될 것이다.

iv) 자료 수집 및 분석: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결국, 근거이론 연구에서는 연구 주제가 큰 틀에서 정해지면 철저한 문헌 검토 및 가설 설정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자료 수집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수집을 시작하는 시점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앞에 설명한대로, 연구 주제를 탐색하는 단계에서 시범적으로 인터뷰, 관찰 등을 진행했을 경우 그 때부터 자료 수집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즉, 연구 주제를 정하기 이전에 수집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해도 된다 (Corbin and Strauss 2015, 375).

근거이론은 사용할 수 있는 자료에 있어 매우 개방적이다. 기록되고, 관찰되고, 녹음·녹화된 것이라면 어떠한 자료도 사용할 수 있다. 인터뷰와 관찰을 통해 수집한 자료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향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동영상, 잡지, 일기, 그림, 내부 문건, 메모, 비망록, 인터넷 게시물, 역사적 자료, 신문 기사, 전기문 등 거의 모든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Corbin and Strauss 2015, 7).

근거이론 연구의 자료 수집 과정상 두드러지는 특징은 이론적 표본 추출(theoretical sampling)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이론적 표본 추출이란 “자료로부터 도출한 개념에 기반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가리킨다(Corbin and Strauss 2015, 134). 양적-연역적 패러다임에서의 통계적 표본 추출(statistical sampling) 시에는 모집단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는 표본을 구성하는 것, 즉 표본의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이론적 표본 추출은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를 목표로 한다. 즉,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출현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장소, 사람, 사건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Corbin and Strauss 2015, 134). 이 때 주의할 점은, 장소, 사람, 사건 그 자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사람·사건(모집단)으로부터 개념(표본)을 수집해야 한다는 점이다(Corbin and Strauss 2015, 147). 통계적 표본 추출에서처럼 표본 추출의 효율성(efficiency)을 높이는 것은 근거이론에서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반복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개념과 개념을 묶은 범주 및 차원을 최대한 많이 발견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론적 표본 추출의 목표이다(Corbin and Strauss 2015, 374).

근거이론 연구에서 자료 수집의 시작 시점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종료 시점은 명확하다. 자료 분석이 끝날 때, 자료 수집도 끝난다. 양적-연역적 패러다임 하에서 수행되는 연구들과는 달리,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하고 나서 분석을 시작하지 않는다. 첫 번째 자료가 수집되면서, 자료 분석이 개시된다. 자료 분석 단계에 진입하고 나서도 자료 수집은 계속될 수 있다. 자료에서 도출되는 개념을 깊게 파고드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다시 자료 수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듯 자료 수집과 분석이 무한 반복되다가, 이론적 포화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자료 수집과 분석이 종료된다(Corbin and Strauss 2015, 146-147). 수집된 자료의 양이 아닌 이론적 포화의 수준이 자료 수집 및 분석의 종료 시점을 결정한다. 이론적 포화 정도가 아닌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의 시간, 에너지, 비용 등의 한계로 자료 수집이 중단될 경우 연구 결과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Corbin and Strauss 2015, 381-382). 이론적 포화에 필요한 개념을 추출하고, 그로부터 이론을 도출하는 과정인 근거이론 자료 분석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2) 근거이론과 자료 분석

원칙적으로는, 근거이론의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 자료에 근거하여 이론을 창출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진행된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연구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잘 훈련된 전문적인 근거이론가라면, 자신만의 분석 전략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Corbin and Strauss 2015, 88-89). 따라서 근거이론 연구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 내의 요소 중 출현하는 이론과 (깊이) 연관되는 것을 알아보고 추출하는 능력”인 이론적 민감성(theoretical sensitivity)을 키워서 근거이론 연구자로서의 자질을 길러야 하지만(Birks and Mills 2015, 181), 어떻게 그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진부하지만 목적과 상황에 맞게, 다양한 전략, 기술을 구사하는 것만이 방법이다(Corbin and Strauss 2015, 88). 근거이론의 이러한 유연성, 혹은 모호성에 대해 막막해하는 근거이론 입문자

들을 위해 스트라우스와 코빈은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개하고, 그에 기반하여 약간의 지침을 소개한다. 근거이론적으로 자료를 분석할 때에는 특히 자료 내부 개념 간, 자료 간의 지속적 비교(constant comparisons)¹⁵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비교하기와 질문하기 외에도 단어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기, 개념을 다각도로 뒤집어 생각해보기, 인생 경험에 반추해보기, 의문 드는 지점에 멈춰 생각해보기, 사용되는 언어에 주목해보기, 표현되는 감정에 주목해보기,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에 주목해보기, 은유·직유적 관점에서 생각해보기, 일반적인 범주로 묶이지 않는 개념에 주목해보기 등의 분석 전략이 사용될 수 있다(Corbin and Strauss 2015, 90-96). 사실 과거에는, 스트라우스와 코빈이 훨씬 더 명확하게 근거이론 분석 방법을 제시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개방성, 유연성, 융통성과 같은 근거이론의 본질을 해친다는 점에서 글레이저를 필두로 한 다른 근거이론가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이전과 같은 명확한 분석틀을 제시하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추상적(purposefully abstract)”으로 몇몇 개념, 전략 등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Corbin and Strauss 2015, 1).¹⁶

이에 본 논문에서는 스트라우스와 코빈이 이전에 명확하게 제시했던 표준적인 근거이론 분석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동시에 많은 지지를 받았고, 결과적으로 많은 근거이론 연구자들이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1990년 <질적 연구의 기초> 제1판에 소개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으로 이루어진 3단계 분석 방법이다(Strauss and Corbin 1990). 코딩이란, 자료의 의미를 해석하기

15) 근거이론의 코딩은 기본적으로 자료에 대한 ‘지속적 비교’를 통해 진행된다. 그러나 ‘지속적 비교’를 통한 분석이 막히면 ‘이론적 비교(theoretical comparisons)’를 시도해볼 수 있다. 이론적 비교는 자료 내에서 발견된 개념을 자료 바깥의 상황이나 자료 외의 문헌들과 비교해봄으로써, 자료에서 도출된 개념의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다듬는 작업이다(Corbin and Strauss 2015, 95).

16) 그러나 코빈에 의하면 1990년 이후 제4판까지 발간된 <질적 연구의 기초>의 기본(the basics), 즉 근거이론 연구자는 자료로부터 개념을 발견(identify)하고, 발전(develop)시키고, 유기적으로 묶어냄으로써(integrate), 이론을 창출해 내야 한다는 핵심은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어떠한 버전의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근거이론 연구의 질은, 정형화되어 있는 방법과 절차를 엄격하게 따르는지 여부보다, 연구자의 훈련, 경험, 동기부여, 능력 등에 의해 많은 부분 결정되기 때문이다(Corbin and Strauss 2015, 373-374).

위해 자료로부터 중요한 개념을 가려내는 것을 뜻하며(Corbin and Strauss 2015, 220), 어떤 버전의 근거이론 방법을 택하더라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질적 연구의 기초>의 가장 최신판인 제4판은 3단계의 코딩 방법을 순차적, 단계별로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곳곳에서 이 3단계 개념을 원용하고 있다. 근거이론 학파에 따라, 버전에 따라, 학자에 따라 각 단계의 명칭은 다르지만 대개 3단계의 코딩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표 7>은 서로 다른 코딩 3단계 명칭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주의할 점은, 같은 1단계 코딩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개념, 방법을 지닌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통적 근거이론의 개방코딩과 구성주의적 근거이론의 초기코딩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표 7> 근거이론 코딩 단계별 명칭 비교

	1단계	2단계	3단계
전통적 근거이론 (e.g., Glaser and Strauss 1967)	개방코딩 (open coding)	선택코딩 (selective coding)	이론코딩 (theoretical coding)
수정된 근거이론 (e.g., Strauss and Corbin 1990)	개방코딩 (open coding)	축코딩 (axial coding)	선택코딩 (selective coding)
구성주의적 근거이론 (e.g., Mills et al. 2015)	초기코딩 (initial coding)	초점코딩 (focused coding)	이론코딩 (theoretical coding)

자료: Chun Tie et al.(2019) Table 1, 일부 수정

i) 개방코딩(open coding): 개방코딩은 근거이론 분석의 첫 단계로서 “원자료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자료를 열어젖혀(open) 쪼개고(break apart), 자료로부터 중요한 개념을 가려내는 것”을 의미한다(Corbin and Strauss 2015, 239). 자료가 수집되면 개방코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완독하여 자료의 행간에 숨어 있는 연구대상의 삶과 감정 등을 있는 그대로 읽고 소화하는 것이 권장된다. 그런 다음, 자료 내에서 자연스럽게 나뉘지는 부분(장, 절, 문단 등)을 중심으로 코딩을 시작한다. 한 줄씩 꼼꼼하게(line by line) 읽어 나가되, 각 부분마다 핵심 주제를 정리하며 자료의 해체와 통합을 반복한다. 코딩 과정에서 각 부분들을 계속해서 서로 비교하고 질문하는 등 여러 분석 전략을 사용한다. 자료에서 중요한 개념이 발견되면 임의적으로 명칭을 부여한다. 또한 그 개념의 속성(properties), 차원(dimensions) 등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그 개념과 다른 개념(들)이 서로 연관될 경우 상위 차원의 범주(categories)로 묶어내는 작업을 수행한다(Corbin

and Strauss 2015, 86-87).

이러한 모든 개방코딩 과정, 그리고 개방코딩 이후의 모든 코딩 과정에서는, 반드시 메모를 작성하여 전 분석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메모를 작성하는 것은 분석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Corbin and Strauss 2015, 122), 연구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논문 등의 연구 결과물에 이러한 메모를 직접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분석 과정을 투명하고, 재현 가능한 형태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메모 작성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다. 메모를 정리해서 도표(diagrams)를 만들어 보는 것도 근거이론가에게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다.

ii) 축코딩(axial coding): 축코딩은 개방코딩의 결과물들을 한 단계 더 심화, 발전시키는 단계이다. 연구대상자들의 행동-상호작용(action-interaction)의 이유와 결과(consequences or outcomes), 그리고 그러한 행위와 상황을 구성하는 일련의 조건(conditions), 맥락(context) 등을 고려해서, 개방코딩에서 발견된 개념들을 배치(locating)하고 연결(linking)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진다(Corbin and Strauss 2015, 156). 실제 축코딩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분석 도구들이 몇 가지 개발되어 있다. 먼저, 패러다임(paradigm)은 흩어져있는 개념과 범주들을 연결할 때 ‘인과 조건(causal conditions) → 현상(phenomenon) → 행동-상호작용 전략(action-interaction strategies) → 결과(consequences)’의 논리 구조로 묶는 기술을 뜻한다. 이 네 가지 요소 사이에 맥락(context)과 매개 조건(intervening conditions) 등도 함께 고려하는데, 정형화된 모형이 있다기보다는 자신의 연구 주제와 분석 결과에 따라 유연하게 요소들을 배치할 수 있다(e.g., Morrow and Smith 1995, 27; Böhm 2004, 272; Buckley and Waring 2013, 156). 조건, 행동-상호작용, 결과 간 관계의 복잡성이 높을 경우에는 조건-결과 매트릭스(conditional/consequential matrix)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Corbin and Strauss 2015, 160-166).

iii) 선택코딩(selective coding): 선택코딩은 “이론을 형성하기 위해 하나의 중심적, 핵심적 범주를 중심으로 모든 범주들을 연결”하는 단계이다(Corbin and Strauss 2015, 187). 앞서 개방코딩과 축코딩에서도 개념들, 범주들 간의 통합(integration)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선택코딩 단계에서는 최종적인 통합, 융합이 완성된다. 이 단계에서는 핵심 범주(core category)를 확정해야 한다. 핵심 범

주는 자료 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개념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충분히 추상적이어서 모든 범주들을 묶어내는 것을 넘어 일반 이론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Strauss 1987, 36; Corbin and Strauss 2015, 189 재인용). 선택코딩에 도움이 되는 전략으로는 메모 및 도표를 작성하거나 다른 근거이론 연구자들과 상의하는 것을 추천한다(Corbin and Strauss 2015, 190-196).

2. 한국 정치학 연구와 근거이론 방법

1) 한국 정치학 연구에 대한 근거이론 적용상의 한계

“근거이론은 (사회과학) 질적연구에서 가장 인기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질적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용 빈도가 높다.”(김인숙 2011, 373) 실제로 사회학(김은정 2017), 사회복지학(김인숙 2007), 교육학(김가람 2019) 등에서 근거이론 방법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인접학문인 행정학의 경우 근거이론의 방법론적 측면에 대해 고찰한 논문은 물론(e.g., 김준현 2010; 권향원·최도림 2011; 윤건수 2013; 이영철 2014; 권향원 2016),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논문(e.g., 최홍석 외 2003; 권선필 2006; 남지원 2008; 한승주 2010; 조원혁 2013; 신상준·이숙중 2017; 김다니·임도빈 2019)도 다수, 꾸준히 발표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 정치학 연구에서는 근거이론 논문을 찾기 어렵다. 근거이론의 정치학 분야 도입 가능성을 학술적으로 검토한 논문도 찾을 수 없다. 아래에서는 한국 정치학 연구에서 근거이론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를 근거이론 자체적인 한계, 정치학계의 구조적인 한계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1) 근거이론의 특성

근거이론은 변증법적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분과가 발생하는 한편, 근거이론 전체적으로는 양적 방법, 또는 다른 질적 방법과 차별화되는 방법론적 지향성이 정립될 수 있었다. 그 결과 근거이론은 대표적인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지만, 여전히 근거이론 자체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더 많은 연구자에 의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근거이론의 방법론적 유동성은 근거이론의 대표적인 장점이자 단점이다. 근거이론은 과학적 엄밀성(scientific rigor)을 추

구하는 이론적, 단선적, 경직적인 방법에서 탈피하여 현실적, 순환적, 유연적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귀납적으로 기존 이론에 경도되지 않는 새로운 발견을 추구한다. 근거이론에서는 ‘방법이 없는 것이 방법’인 것이다. 그 때문에 근거이론 수행에 대한 명확한 강령이나 지침을 만들지 않고 연구자 개개인의 ‘스타일’에 따르면 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유동성은 누구나 근거이론을 시도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근거이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상당한 진입장벽을 만들었다. 근거이론 논문의 학술적, 윤리적 측면은 평가하기 어렵거나 평가자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연구 수행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예를 들어, 이론적 민감성과 같은 연구자의 자질에 의해 근거이론 연구의 완성도가 결정되지만 어느 정도의 이론적 민감성이 필요한지, 그 정도의 이론적 민감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 수 없다. 이에 따른 어려움은 특히 초보 근거이론가들에게 더욱 가중되므로 그들이 근거이론을 충분히 습득하여 학술적 논의를 활발히 진행할 만큼 성장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그 때문에 근거이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예비 근거이론가들이 더욱 망설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근거이론이 거의 시도되지 않은 학문 분야에서 근거이론을 사용하는 학자들의 공동체가 형성, 발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연구자마다 자료를 창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동일한 자료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근거이론의 장점이지만, 이론적 포화가 일어날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지속적 비교를 수행해야 한다는 근거이론의 준칙을 지키는 것은 (공동)연구자의 학자적 양심에 기대는 경향이 크다. 근거이론의 재현불가능성, 검증불가능성으로 인해 근거이론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연구의 질 하락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완벽하게 불식시킬 수 없을 경우, 근거이론에 기반한 논문이 동료 평가를 거쳐 출판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론 창출이라는 근거이론의 목표는 분명 학문적 가치를 지니지만, 창출된 가설과 이론이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되지 못하면 그 가치는 반감될 것이다. 개별적으로 “관찰된 데이터에서 생성된 이론은 반증될 수 없는 주장에 그칠 수 있다.”(박종민 2016, 22) 양적-연역적 패러다임 하에서는 기존의 이론을 검증 혹은 반증하는 것으로 소임을 다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근거이론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표, 즉 이론 창출이 달성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연구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양적-연역적 패러다임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즉 이론의 창출과 후속연구를 통한 검증까지 염두에 두는 방향으로 연구를 설계하는 것이 근거이론의 지속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확실히 연구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인접 학문에서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오고가며 가설의 생성과 검증을 시도하는 ‘르네상스적’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¹⁷⁾ 예를 들어, 행정학 분야에서는 근거이론을 통해 “공무원이 조직생활에서 경험하는 체면 현상과 행위”에 대해 분석한 결과(유민봉·심형인 2011a)를 바탕으로 개발한 설문을 실시하고, 그에 대해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등의 양적 방법을 통해 분석한 사례가 있었다(유민봉·심형인 2011b).¹⁸⁾

(2) 연구 환경의 특성

현재 전 세계 사회과학계, 그리고 한국 정치학계에서는 양적-연역적 패러다임이 ‘과학’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과학’은 “체계적이고, 엄밀하며, 증거에 기초한, 일반화 가능한, 비주관적인, 선행연구에 기반한(systematic, rigorous, evidence-based, generalizing, nonsubjective, and cumulative)” 방법에 의해 실현된다(Gerring 2001, xv). 양적 방법이든 질적 방법이든, 과학적 연구라면 이른바 “통합적인 논리적 추론 원칙(unified logic of inference)”을 바탕으로 삼기 마련이라는 KKV의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나(King et al. 1994, 4), 그 추론의 논리가 양적-연역적 패러다임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 또한 널리 인용되고 있다. 즉, 질적 연구의 가치가 양적 연구에서 비롯된 과학성을 기준으로 평가

17) 근거이론적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히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배경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복합적인 분석 및 추론 능력, 즉 “르네상스적인 역량”이 연구자에게 요구된다(권함원·최도람 2011, 296). 그러므로 그 연구 과정 및 결과 또한 ‘르네상스적’이어야 할 것이다.

18) 사회학 분야에서는, 이와 반대로 근거이론을 통해 양적인 연구에 대한 보완을 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저자 중 한 사람이 참여하여 구축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설문(NKIP: North Korean Immigrant Panel) 결과(전우택 외 2009)와 근거이론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설문조사 사안으로는 알 수 없는 맥락들을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하고자 하였다(염유식·김여진 2011, 96). 설문조사 참여자 중 일부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설문조사 응답과 상반되는 답변을 한 면담대상자가 존재했다는 점이 밝혀졌으며, 그로부터 설문만으로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이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근거이론 연구가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양적 연구 결과를 반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되는 학계 전반의 구조 속에서, 연구자들이 양적-연역적 패러다임의 틀로 규정될 수 없는 근거이론을 사용하는 데는 많은 부담이 따른다. 논문 게재를 위해서 거치는 엄정한 동료 평가 과정 속에서, 근거이론 논문은 자칫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게재가 어려워질 수 있다. 게다가 근거이론 연구 수행에 필요한 방대한 양의 자료를 반복적으로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생산 논문 편수 대비 과도할뿐더러, 연구 완료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연구비 수주 단계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가설의 검증과 이론의 일반화를 목표로 하는 사회·과학 연구자들에게 가설의 탐색과 이론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연구계획서는 비효율적,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문화’, ‘종교’, ‘언어’의 차이를 넘어 진정한 패러다임의 공존과 다원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현재로서는 좋은 근거이론 연구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더하여, 한국적인 맥락에서 근거이론 연구가 활발해지기 어려운 이유는, 양적인 성과를 강조하는 연구 풍토이다. 정치학계는 물론 사회과학계 전반적으로, 임용과 승진에 논문편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특히 신진연구자들에게는 근거이론이 요구하는 이론적 민감성, 이론적 포화 등의 요건이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근거이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에도, 근거이론 연구를 실제 수행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각종 심사에서 학술적 성과에 대한 정성적 평가 비중이 높아져 근거이론의 가치가 조명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한국 정치학 연구에 대한 근거이론 적용 가능성

(1) 근거이론의 정치학적 유용성

서양으로부터 수입된 학문이라는 태생적 근원을 갖고 있는 한국 현대 정치학의 당면 과제는 한국적 지식체계 수립을 통해 이론적 탈맥락화를 극복하는 것이다(백종국 2016). 이는 클레이저와 스트라우스가 근거이론을 창안할 당시, 미국의 사회학계가 수집된 자료로부터 새로운 이론을 창출하기보다, 학계의 대가들이 정립한 이론을 검증하는 데 골몰하는 것을 경계했던 맥락과 유사하다. 당시의 상황은 이론을 소유한 자본가(theoretical capitalist)와 이론을 소유하지 못하고 남의 이론을 검

증만 하는 무산계급(proletariat testers)의 양대 구도로 묘사되었다(Glaser and Strauss 1967, 10). 즉, 근거이론은 “질적 연구와 이론화의 민주화(the democratization of qualitative research—and of theorizing itself)”를 통해 이러한 ‘계급 간 갈등’을 해소하려는 소명을 갖고 있다(Charmaz 2008, 399). 대가와 같은 천부적인 분석 감각이 없이도, 비밀스러운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큰 틀에서 가이드 라인을 지키기만 한다면 누구든 근거이론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근거이론은 주로 질적 자료를 다루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어떤 종류의 자료든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과학 분야에서 확장가능성이 크다(Glaser 2001; 2003). 그렇기 때문에 정치학의 모든 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국제정치학, 비교정치학, 정치사회학, 정치과정 등의 주요 분과에서 이론을 생성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B. Becker 2012, 9-12). 특히 거대이론(grand theory)과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중범위이론(middle range theory)을 창출하는 데 근거이론의 유용성은 크다(Dey 1999).

<표 8> 근거이론에 기반한 확장적 연구 설계의 예시

	1단계	2단계
연구 초반부	귀납적-탐색적 접근을 통한 개념적 발견 → 근거이론 활용	양적 검증을 통한 일반화
	예시) 유민봉·심형인(2011a)	예시) 유민봉·심형인(2011b)
연구 후반부	연역적-이론적 접근을 통한 기존 이론의 검증	이론의 질적 정교화를 통한 맥락적 특수성 확증 → 근거이론 활용
	예시) 전우택 외(2009)	예시) 염유식·김여진(2011)

자료: 권향원·최도림(2011), <그림 1>, <그림 2> 수정

이에 더하여, 근거이론 연구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매개하는 ‘방법 혼합 연구 설계(mixed methods research design)’에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함으로써 방법론적 균형에 도움을 준다(Creswell and Clark 2007). <표 8>과 같이 연구 초반부에 양적 검증에 필요한 이론적 개념들을 도출해내거나, 연구 후반부에 양적 검증 결과의 현실 설명력을 연구 대상에 대한 면담을 통해 확장하는 방식 등을 시도해볼 수 있다(권향원·최도림 2011). 선행연구와 후속연구가 별개의 논문으로 출판되도

록 할 수도 있고, 한 논문 내에서 확장적 연구 설계 1단계와 2단계가 모두 포함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방법론적 삼각화(methodological triangulation)를 가능케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연구의 ‘과학성’을 높여 양적-연역적 패러다임 하에서도 근거이론이 확장될 수 있는 여지를 넓힐 것이다.

(2) 한국 정치학 연구와 근거이론

첫째, 최근 20여 년간 <한국정치학회보>에 게재된 전체 논문의 17.4%가 정치철학·사상 분야로 분류되었다. 2000~2009년에는 17.2%, 2010~2019년에는 17.7%로, 안정적인 비율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소폭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치철학·사상 연구는 문헌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일반적으로 실증 자료를 논증의 직접적인 재료로 삼지 않는다. 아울러 이들 연구는 방법적 회의(methodic doubt), 논증(argument), 변증법(dialectic) 등을 핵심 요소로 하는 철학적 방법론(philosophical methodology)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정치철학·사상 연구의 강세 속에서 근거이론이 한국 정치학 연구 내에 널리 확장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선 밝힌다. 추세와 유행에 경도되지 않고, 근거이론의 목적과 유용성을 정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그 확장, 발전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대 이후 <한국정치학회보>에 실린 방법론 연구는 전체 게재 논문의 0.8%이다. 그 중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해 고찰하고 있는 논문은 전무하다. 위에서 언급한 사회과학 분야 인접 학문들의 동향과는 크게 다른 흐름일뿐더러, 여전히 정성적 연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치학 내부의 동향에 비추어보아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정치학회보>를 벗어나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소수의 연구만이 질적 연구 방법의 정치학 적용 가능성 및 전략을 다루고 있다(e.g., 이재성 2007; 도종윤 2017). 질적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이 활성화 될 때, 한국 정치학 연구 내에서 근거이론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근거이론 연구가 등장하게 되면 이에 근거한 후속 연구가 촉진될 수 있고, 더 나아가 근거이론에 중점을 둔 학문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따라서 단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정치학 내에서 근거이론의 발아와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셋째, 한국정치, 비교정치, 국제정치 등의 분야는 개념적인 연구와 실증적인 연구가 모두 행해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정치학회보> 게재 논문의 약 64.3%가량이 정성적인 연구, 35.7%가량이 정량적인 연구로 분류될 수 있으나, 계량적인 방법을 사용한 논문이 <그림 2>에서처럼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질적 방법을 사용한 연구의 대부분은 특정한 방법을 사용하기보다 개념적인 서술로 논리를 전개하는 경향이 있다. 알려진 연구 방법 중에서는 사례연구가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최대유사체계(most similar systems), 최대상이체계(most different systems) 등의 체계적인 비교 분석 방법이 사용된 것은 드물다. 이처럼 질적 연구에서 어떠한 하나의 방법이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지 않는 현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근거이론이 확장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는 인터뷰 조사뿐만 아니라, 근거이론 방법을 통해 국가(nations)와 지역(world regions) 등을 비교 분석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Glaser and Strauss 1967, 21). 근거이론 분석에는 인터뷰 녹취록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용하는 자료의 수집 방법과 자료의 특성에 크게 제한을 두지 않는 점도 장점이다. 이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기록 및 문서를 근거이론 분석의 자료로 삼을 경우에는, 분석 단위 및 수준에 구애를 받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시간과 노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근거이론 연구가 더 많은 학자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Glaser and Strauss 1967, 21). 필요한 경우, ATLAS.ti, NVivo와 같은 ‘컴퓨터기반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CAQDAS: Computer-Assisted 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are)’의 도움을 받아 방대한 양의 원자료를 전사(transcription)하거나 전사지를 코딩할 때의 수고를 덜 수 있어 과거보다 근거이론 연구를 수행하는 데 따르는 물리적 부담이 덜하다.

IV. 결론

“우리는 엄청나게 유동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 이 세계는 가만히 머물러있지 않을 것이며, 머물러 있을 수도 없다. ... 이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완벽하게 결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 세계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구조를 직접 만들어간다

는 것의 의미에 대해 탐구함으로써 이 세계가 어떻게 결정되어 가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Strauss 1993, 19; Corbin and Strauss 2015, 22 재인용)¹⁹⁾

우리가 아는 한국의 현실 정치는 위에 인용한 스트라우스의 묘사한 세계와 놀라우리만치 닮아 있다. 새로운 10년(new decade)이 시작되는 2020년대 초입에서 한국 정치학 연구의 새로운 전환점을 찾기 위해서는 스트라우스의 세계관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 사이의 팽팽한 긴장을 정치학 발전을 위한 시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근 사회과학 연구에서 부각되고 있는 방법 혼합 연구(mixed method research), 방법론적 삼각화 등의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 때 근거이론은 실용주의 관점에서 유용한 관점, 도구들을 제공해줄 것이고, 연구자들은 열린 자세로 근거이론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Bryant 2017). 근거이론에서는, 양적-연역적 패러다임에서의 타당성(validity), 신뢰성(reliability), 통계적 유의성(statistical significance), 일반화가능성(generalizability)이 아닌, 현실(자료)과의 부합성(fit), 현실적 적절성(relevance), 현실적 실행가능성(workability), 수정가능성(modifiability)이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Glaser and Strauss 1967; Glaser 1978; Denzin and Lincoln 2005, 527 재인용).²⁰⁾ 즉, 양적 방법만이 과학적 지식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방법론적 일원주의(methodological monism)에서 벗어나 방법론적 다원주의(methodological pluralism)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Feyerabend

19) 인용문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의 뜻을 최대한 살리면서 자연스럽게 의역한 것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are confronting a universe marked by tremendous fluidity; it won’t and can’t stand still. ... This is a universe where nothing is strictly determined. Its phenomena should be partly determinable via naturalistic analysis, including the phenomenon of men [and women] participating in the construction of the structures which shape their lives.”

20) 부합성은 도출된 개념, 가설, 이론이 자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는 정도를 가리킨다. 적절성은 자료가 수집된, 자료 밖 현실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실제 논점들과의 연관성을 측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학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느끼기에도 도출된 개념, 가설, 이론이 적절해야 함을 의미한다. 실행가능성은 도출된 개념, 가설, 이론이 실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수정가능성은 새로운 자료가 수집되었을 때 기존 자료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기존의 근거이론이 지속적으로 수정됨으로써 현실적 부합성, 적절성, 실행가능성을 계속 높여갈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1975/2010). 근거이론 연구를 양적 연구 논리로 평가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근거이론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고, 한국 정치학 연구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선필. 2006.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통해 재구성해 본 지방정부 하급 공무원의 혁신수용현상에 관한 해석과 함의.”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권 4호, 45-67.
- 권향원. 2016. “근거이론의 수행방법에 대한 이해: 실천적 가이드라인과 이론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권 2호, 181-216.
- 권향원·최도립. 2011. “근거이론적 방법의 이론화 논리에 관한 이해: 한국행정학의 비맥락성과 방법론적 편향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권 1호, 275-301.
- 권혁용. 2012. “한국의 정치학 연구: 1991-2010 『한국정치학회보』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6집 2호, 117-140.
- 권혁용. 2015. “한국 정치학 방법론과 인과추론.” 『평화연구』. 23권 1호, 383-412.
- 김가람. 2019. “한국어교육학 연구에서 ‘근거 이론 연구 방법론’의 동향.” 『한글』. 80권 3호, 595-626.
- 김다니·임도빈. 2019. “고위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이해: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한국행정학보』. 53권 1호, 95-123.
- 김병욱. 2011. “정치학 방법론에 관한 메타이론적 검토: 메타정치학의 모색.” 『한국정치학회보』. 45집 4호, 109-137.
- 김영천. 2016. 『질적연구방법론 I: Bricoleur (제3판)』. 과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옥. 2002. “선거와 정치주식시장.” 『한국정치학회보』. 36집 2호, 199-221.
- 김용진. 1987. “회귀분석 “신드롬”: 한국정치학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기법적 진단.” 『한국정치학회보』. 21집 2호, 203-217.
- 김은정. 2017. “한국의 사회학 연구영역에서의 근거이론의 활용 방법과 전개, 그리고 향후 방향의 모색: 『한국사회학』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1집 3호.
- 김인숙. 2007.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 동향과 의미.” 『한국정치학회보』. 59권 1호, 275-300.

- 김인숙. 2011. “근거이론의 분기: Glaser와 Strauss의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 42권 2호, 351-379.
- 김준현. 2010. “행정사례연구 접근방법으로서 근거이론의 전망과 한계.”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21권 2호. 321-341.
- 김지희. 2002a. “한국 정치학에 있어서 방법론 연구의 성과와 과제, 1980-2001.” 『21세기정치학회보』 . 12집 1호, 231-246.
- 김지희. 2002b. “비교정치연구에 있어서 혼합체계 분석안의 방법론적 적실성: 인과추론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 35집 4호, 265-275.
- 김형민. 2009. “네트워크 분석방법의 국제정치학적 적용: 군사무기 이전의 사회연결망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 43집 1호, 301-321.
- 남지원. 2008. “조직구성원의 정책대응에 관한 근거이론적 분석: ‘K’초교 교원들의 ‘교원평가’ 시범학교 대응에 근거한 정책집행심.’” 『한국조직학회보』 . 5권 2호, 89-141.
- 도중윤. 2017. “국제정치학 연구에서 현상학적 글쓰기.” 『국제정치논총』 . 57집 2호, 51-96.
- 민병원. 2010. “통섭의 국제정치학: 과학적 설명의 메커니즘과 분석수준.” 『한국정치학회보』 . 44집 1호, 125-147.
- 박종민. 2016. “한국행정학보를 통해 본 한국의 행정연구 반세기: 인과이론 형성의 시각에서.” 『한국행정학보』 . 50권 3호, 1-34.
- 백종국. 2016. “수입학문의 토착화 딜레마와 해결방안.” 『한국정치학회보』 . 50집 1호, 5-21.
- 신상준 · 이숙중. 2017. “공공갈등에서 시민참여의 변화: 수도권매립지 사례에 대한 근거이론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 51권 3호, 157-191.
- 안재홍. 2005. “수(數)와 이야기.” 『한국정치학회보』 . 39집 3호, 105-127.
- 염유식 · 김여진. 201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 형성과 유형에 대한 근거 이론 연구.” 『한국사회학』 . 45집 2호, 91-129.
- 유민봉 · 심형인. 2011a. “공무원이 조직생활에서 경험하는 체면 현상과 행위에 대한 질적 연구: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적용하여.” 『한국행정학보』 . 45권 1호, 199-225.

- 유민봉·심형인. 2011b. “공무원의 체면민감도 척도개발연구: 척도 타당화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 45권 3호, 335-364.
- 윤건수. 2005. “한국 행정학의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반성과 제안.” 『한국행정학보』 . 39권 2호, 1-22.
- 윤건수. 2013. “경험의 의미와 질적연구의 연구과정: 근거이론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17권 2호, 163-200.
- 이갑윤. 1987. “정치학의 과학화와 통계적 방법.” 『한국정치학회보』 . 21집 2호, 191-202.
- 이대진. 2015. “국제정치학 연구의 방법론적 정향: 한국정치학회보 2000-2013.” 『정치정보연구』 . 18권 3호, 51-73.
- 이상환. 1998. “한국정치학회보와 국제정치논총에 대한 비교연구: 분석과 평가 - 미국정치학회보에 대한 분석과 그 평가기준을 토대로.” 『국제정치논총』 . 38집 1호, 17-39.
- 이상환. 2001. “국제정치분야의 경험적 연구에 관한 분석: 국제정치논총과 한국정치학회보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 41집 4호, 361-378.
- 이영철. 2014. “근거이론의 근거에 대한 음미: 방법론과 방법.”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18권 1호, 187-214.
- 이재성. 2007. “한국정치사와 구술사: 정치학을 위한 방법론적 탐색.” 『한국사회과학』 . 29권, 167-199.
- 임도빈. 2009. “질적 연구 방법의 내용과 적용전략: 양적인 질적 연구와 질적인 질적 연구.” 『정부학연구』 . 15집 1호, 155-187.
- 임성학. 2010. “한국 정치학 연구의 동향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안.” 『정치정보연구』 . 13권 2호, 257-274.
- 전우택·유시은·조영아·염유식·김연희. 2009. 『제16회 한반도 평화포럼 자료집: 이 땅에서의 첫해, 500명 북한이주민의 삶과 생각』 . 서울: 한반도평화연구원.
- 조기숙·박혜윤. 2004. “신뢰의 측정: 실험과 설문조사의 차이.” 『한국정치학회보』 . 38집 2호, 95-116.
- 조성대. 2008. “정치학분야의 계량분석 연구: 2000년 이후 한국정치학회보와 국제

- 정치논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편), 『정치학이해의 길잡이(제2권): 정치이론과 방법론』. 서울: 법문사.
- 조원혁. 2013. “일선 경찰관의 재량행위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47권 3호, 389-423.
- 최홍석·홍성만·주경일. 2003. “사회적 갈등의 근거론적 이해: 담건설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7권 4호, 169-191.
- 한승주. 2010. “성과급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대응: 근거이론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44권 4호, 29-58.
- 함성득·임동욱·곽승준. 2004. “한국 대통령 평가방법의 과학적 설계과정: 다속성 효용이론과 스윙기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8집 2호, 263-284.
- 홍재우·김형철·조성대. 2012. “대통령제와 연립정부: 제도적 한계의 제도적 해결.” 『한국정치학회보』. 46집 1호, 89-112.
- Babbie, Earl. 2001.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9th edition). Belmont, CA: Wadsworth Cengage
- Babbie, Earl. 2013. *The Basics of Social Research* (6th edition). Belmont, CA: Wadsworth Cengage.
- Becker, Brittney. 2012. “The Grounded Theory Method and Its Uses for Political Science.” *Methods of Field Research* No. 4. Free University of Berlin. Retrieved from <https://refubium.fu-berlin.de/handle/fub188/19260> (last accessed May 9, 2020).
- Becker, H. S. 1986. *Doing Things Together*.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Benoliel, Q. J. 1996. “Grounded Theory and Nursing Knowledge.” *Qualitative Health Research*. 6(3): 406-428.
- Birks, M. and J. Mills. 2015. *Grounded Theory: A Practical Guide*. London: SAGE Publications.
- Blumer, H. 1969. *Symbolic Interactionism: Perspective and Metho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öhm, A. 2004. "Theoretical Coding: Text Analysis in Grounded Theory." In U. Flick, E. Kardorff and I. Steinke (eds.). *A Companion to Qualitative Research*. (pp. 270–275). London: SAGE Publications.
- Bryant, A. 2002. "Re-Grounding Grounded Theory."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ory and Application*. 4(1): 25–42.
- Bryant, A. 2017. *Grounded Theory and Grounded Theorizing: Pragmatism in Research Practice* (1st edition).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Buckley, Charles A. and Michael J. Waring. 2013. "Using Diagrams to Support the Research Process: Examples from Grounded Theory." *Qualitative Research*. 13(2): 148–172.
- Bunt, S. 2016. "Critical Realism and Grounded Theory: Analysing the Adoption Outcomes for Disabled Children Using the Retroduction Framework." *Qualitative Social Work*. 17(2): 176–194.
- Charmaz, K. 2000. "Grounded Theory: Objectivist and Constructivist Methods." In Denzin, N. K. and Y. S.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2nd edition). (pp. 509–535).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Charmaz, K. 2006.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Charmaz, K. 2008. "Constructionism and the Grounded Theory." In J. A. Holstein and J. F. Gubrium (eds.). *Handbook of Constructionist Research*. (pp. 397–412).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Chun Tie, Y., M. Birks, K. Francis. 2019. "Grounded Theory Research: A Design Framework for Novice Researchers." *SAGE Open Medicine*. 7. (doi: 10.1177/2050312118822927)
- Corbin, J. and A. Strauss. 2015.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4th editio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Creswel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Creswell, J. W. and V. L. P. Clark. 2007. *Designing and Conducting Mixed Methods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Denzin, N. K. 1994. "The Art and Politics of Interpretation." In N. K. Denzin and Y. S.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 500–515).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Denzin, N. K. and Y. S. Lincoln. 2000. "Introduction: The Discipline and Practice of Qualitative Research." In N. K. Denzin and Y. S.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2nd edition). (pp. 1–29).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Denzin, N. K. and Y. S. Lincoln (eds.). 2005.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3rd editio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Denzin, N. K. and Y. S. Lincoln (eds.). 2011.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4th editio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Dey, I. 1999. *Grounding Grounded Theory: Guidelines for Qualitative Inquiry*.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Feyerabend, Paul. 1975/2010. *Against Method* (4th edition). Brooklyn, NY: Verso.
- Gary, T and J. David. 2006. "Reinventing Grounded Theory: Some Questions about Theory, Ground and Discovery."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2(6): 767–795.
- Gerring, John. 2001. *Social Science Methodology: A Critical Framework*.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laser, B. 1978. *Theoretical Sensitivity: Advances in the Methodology of Grounded Theory*. Mill Valley, CA: Sociology Press.
- Glaser, B. 1992. *Emergence vs. Forcing: Basics of Grounded Theory Analysis*.

- Mill Valley, CA: Sociology Press.
- Glaser, B. 2001. *The Grounded Theory Perspective: Conceptualization Contrasted with Description*. Mill Valley, CA: Sociology Press.
- Glaser, B. 2003. *The Grounded Theory Perspective II: Description's Remodeling of Grounded Theory Methodology*. Mill Valley, CA: Sociology Press.
- Glaser, B. and A. Strauss. 1965. *Awareness of Dying*. Chicago, IL: Aldine.
- Glaser, B. and A. Strauss.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Hawthorne, NY: Aldine Publishing Company.
- Gregory, Toni A. 2006. "An Evolutionary Theory of Diversity: The Contributions of Grounded Theory and Grounded Action to Reconceptualizing and Reframing Diversity as a Complex Phenomenon." *World Politics: The Journal of New Paradigm Research*. 62(7): 542-550.
- Guba, E. G. and Y. S. Lincoln. 2005.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In N. K. Denzin and Y. S. Lincoln (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3rd edition). (pp. 191-216).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Hatch, J. Amos. 2002. *Doing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Settings*. Albany, NY: Suny Press.
- Heath, H. and S. Cowley. 2004. "Developing a Grounded Theory Approach: A Comparison of Glaser and Straus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1(2): 141-150.
- Hoddy, E. T. 2018. "Critical Realism in Empirical Research: Employing Techniques from Grounded Theory Method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22(1): 111-124.
- Jacob, Evelyn. 1988. "Clarifying Qualitative Research: A Focus on Traditions." *Educational Researcher*. 17(1): 16-24.
- Jennings, G. R. 2012.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L. Dwyer, A. Gill and

- N. Seetaram (eds).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Tourism: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pp. 309–323). Cheltenham: Elgar Publishing.
- Keddy, B., S. Sims and P. N. Stern. 1996. “Grounded Theory Methodolog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3(3): 448–453.
- Kempster, P. and K. W. Parry. 2011. “Grounded Theory and Leadership Research: A Critical Realist Perspective.” *The Leadership Quarterly*. 22(1): 106–120.
- Kendall, J. 1999. “Axial Coding and the Grounded Theory Controversy.”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1(6): 743–757.
- King, G., R. O. Keohane and S. Verba. 1994. *Designing Social Inquiry: Scientific Inference in Qualitative Research*.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im, Sung–youn. 2009. “Psychological Learning, Reinforcement Learning, and The Emergence of Cooperation in the Prisoner’s Dilemma.” *한국정치학회 보*. 43(5): 53–74.
- Kuhn, Thomas S. 1962/1996.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3rd e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ncy, David F. 1993.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 Major Traditions*. New York, NY: Longman.
- Lewis–Beck, M., Alan E. Bryman and Tim Futing Liao. 2003. *The SAGE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s* (Volume II).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Linden, Kara Vander. 2006. “A Grounded Approach to the Study of Complex Systems.” *World Politics: The Journal of New Paradigm Research*. 62(7): 491–497.
- Lyotard, Jean–Francois. 1979/1984.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s on Knowledge* (Theory and History of Literature, Volume 10) (1st edition). Minneapolis, MN: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Mahoney, James. 2010. "After KKV: The New Methodology of Qualitative Research." *World Politics*. 62(1): 120–147.
- Mahoney, James and Gary Goertz. 2006. "A Tale of Two Cultures: Contras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Political Analysis*. 14(3): 227–249.
- Mead, G. H. 1932. *Philosophy of the Present*. La Salle, IL: Open Court Press.
- Merriam, Sharan B. 2009.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3rd edi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Mills, J., A. Bonner and K. Francis. 2006. "The Development of Constructivist Grounded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5(1): 25–35.
- Mills J., M. Birks and K. J. Hoare. 2015. "Grounded Theory." In J. Mills, M. Birks (eds.). *Qualitative Methodology: A Practical Guide*. (pp. 107–121). London: SAGE Publications.
- Morrow, Susan L. and Mary L. Smith. 1995. "Constructions of Survival and Coping by Women Who Have Survived Childhood Sexual Abus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1): 24–33.
- Morse, J. 1994. "Emerging from the Data: The Cognitive Processes of Analysis in Qualitative Inquiry." In J. Morse (ed.). *Critical Issues in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pp. 23–43). Newbury Park, CA: SAGE.
- Oliver, C. 2012. "Critical Realist Grounded Theory: A New Approach for Social Work Research."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42(2): 371–387.
- Ralph, N., M. Birks and Y. Chapman. 2015. "The Methodological Dynamism of Grounded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14(4): 1–6.
- Rennie, D. 1998. "Grounded Theory Methodology: The Pressing Need for a Coherent Logic of Justification." *Theory and Psychology*. 8(1): 101–119.
- Romme, A. Georges L. 1995. "Boolean Comparative Analysis of Qualitative

- Data: A Methodological Note.” *Quality and Quantity*. 29(3): 317–325.
- Schreiber, R. S. 2001. “The “How To” of Grounded Theory: Avoiding the Pitfalls.” In R. S. Schreiber and P. N. Stern (eds.). *Using Grounded Theory in Nursing*. (pp. 55–84). New York,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Schrodt, Philip A. 2006. “Beyond the Linear Frequentist Orthodoxy.” *Political Analysis*. 14(3): 335–339.
- Strauss, A. L. 1987. *Qualitative Analysis for Social Scientists*.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rauss, A. L. 1993. *Continual Permutations of Action*. New York, NY: Aldine de Gruyter.
- Strauss, A. L. and J. Corbin.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Strauss, A. L. and J. Corbin.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Thomas, G. and D. James. 2006. “Reinventing Grounded Theory: Some Questions about Theory, Ground and Discovery.”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2(6): 767–795.
- Van Maanen, J. 1979. “Reclaiming Qualitative Methods for Organizational Research: A Prefac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4(4): 520–526.
- Walker, D. and F. Myrick. 2006. “Grounded Theory: An Exploration of Process and Procedure.”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6(4): 547–559.
- West, W. 2001. “Beyond Grounded Theory: The Use of Heuristic Approach to Qualitative Research.”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Research*. 1(2): 126–131.
- Wolcott, H. F. 1992. “Posturing in Qualitative Inquiry.” In M. D. Le Compte,

W. L. Millroy and J. Preissle (eds). *Th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pp. 3–52). New York, NY: Academic Press.

<Abstract>

Deepening and Expanding Qualitative Research: Applying the Grounded Theory Method to Political Science in Korea

Nara Park(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grounded theory, one of the most preferr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the social sciences, to help open a new horizon in the field of political methodology in Korea. A survey of Korean political science research in recent decades shows that despite the increasing predominance of quantitative, statistical methods, a number of studies still used non-quantitative methods, among which only a few followed qualitative methodology in the strict sense. In addition, there has not been much scholarly discussion on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In this regard, the grounded theory method, aiming at constructing theory grounded in data under the qualitative-inductive paradigm, would be able to bring balance to the methodological spectrum, which is dominated by the quantitative-deductive paradigm, to test existing theories. Ultimately, grounded theory will contribute to addressing the gap between grand theory and reality and to contextualizing middle-range theories, especially in Korean politics, comparative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research.

Key words: Political Science in Korea, Methodology,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Method

논문 접수일: 2020년 05월 17일

심사 완료일: 2020년 06월 14일

게재 확정일: 2020년 06월 20일